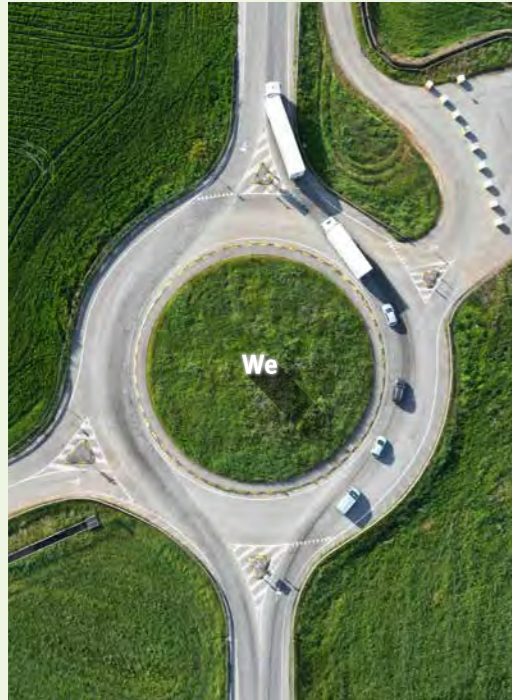


세플러 + 윈

VOL. 80 / SPRING & SUMMER 2025

We

SCHAEFFLER



We

We pioneer motion에서
 'We'는 글로벌 기업 세플러의 정체성이자
 성공의 조건입니다.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션 기술은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Vol. 80의 표지는 함께함으로써 더욱 강해진,
 모션 테크놀로지(Motion Technology) 기업
 세플러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세플러*원 바로가기



사보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으로 세플러코리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일 2025년 5월 1일(통권 제80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윤솔지, 이현기, 김채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 08 Scene**
이천 사업장은 처음이시죠?
- 14 VS.**
물류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이천 사업장 오토스토어
- 18 Schaeffler New**
Robotics & Humanoid TF로 세플러 미래 엔진 Running
- 20 Master**
도정호 상무 & 조형만 이사
- 24 Team Schaeffler**
생산 현장 '어벤져스'의 비밀, "소통이 답이다"
- 28 S. Culture**
'세플러'라는 브랜드의 힘, 브랜드로서의 '세플러'
- 30 Together**
화창한 봄날의 한 조각
- 34 Mind Café**
Z세대 팀 막내와의 소통법
- 36 Schaeffler Ground**
2025년 1~4월 주요 이슈
- 40 Schaeffler Challenge**
최애 사진 챌린지
- 43 Thanks & Quiz**

Schaeffler가 만드는 새로운 교향곡

프로젝트 스트라디바리는
혁신의 박자를 맞추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파가니니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완벽한 하모니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STRONGER TOGETHER

Schaeffler가 만들어갈,
혁신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술과 혁신의 결합 세플러의 미래를 향한 힘찬 연주



프로젝트 스트라디바리에서 파가니니까지

Schaeffler New를 위한 통합 준비
프로젝트명은 '스트라디바리'였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현악기 제작자이며, 그의 바이올린은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의 작품들은 예술성과 음향의 완벽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을 세플러와 비테스코의 합병 프로젝트명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의 악기를 제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합병을 이끄는 것. 이에 통합 준비 단계에서는 혁신의 리듬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전략적인 기초를 다지는 데 온 힘을 썼다.

2024년 10월 1일 합병 Day1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합 실행 단계, '프로젝트 파가니니'가 시작되었다. 니콜로 파가니니(Nicolo Paganini)는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새롭게 태어난 세플러가 최고의 악기를 연주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와 같이 하나된 역량으로 글로벌 모션 테크놀로지(Global Motion Technology)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로 파가니니의 이름을 붙였다.

통합 실행은
2027년까지
2024년 10월 1일
비테스코가 세플러 그룹에 합병

전 세계 **55** 개국

사업장 **250** 여 개

직원 **12** 만여 명

Schaeffler만의 교향곡으로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는 이러한 다름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이 하나로 통합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가니니에서는 통합 과정을 조율하고 복잡성을 줄이는 데 힘쓸 것이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공통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실천해서 세플러만의 교향곡을 만들어갈 것이다.

세플러 HR 전략 책임자 안드레아스 포셀(Andreas Possel)이 이끄는 통합 실행 프로젝트가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각 글로벌 워크스트림(Workstream)에서 담당 직원들은 긴밀히 협력하며 통합 과제를 추진한다. Integration Execution Office는 예산, 마일스톤, 결과 등의 핵심 성과 지표 준비를 확인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기적인 통합으로 세플러가 선도적인 모션 테크놀로지(Motion Technology) 기업으로 바로 서려면, 결국 전 세계 모든 세플러 직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다.

Integration Execution Workstreams

- 1 Sale TOM
- 2 Global Brand Integration
- 3 Global Footprint Integration
- 4 Legal Entity Structure Integration
- 5 IT System Integration
- 6 Process Integration
- 7 Internal Reporting Consolidation
- 8 Purchasing TOM
- 9 Synergies
- 10 Culture & Values

Communication Workstream

“ 세플러코리아의 통합은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Division 및 Function에서 자발적으로 협업해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Korea Sub-Workstream leads를 맡아서 각 부분에서 열심히 통합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모든 Korea Sub-workstream leads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Korea Integration Execution Project lead 하두호 팀장

Sale TOM(Target Operating Model)을 시작으로 Communication까지

통합 실행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와 달리 모든 것이 한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스트림별로 글로벌/ 디비전/평선 워크스트림(Global / Division / Function WS)에 따라 각기 다른 타임라인으로 진행된다.





Special Thanks to

촬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선 님 Plant LEAN
 박성한 님 Plant LEAN
 윤일선 님 Plant LEAN
 정영환 님 Purchasing
 이종환 님 Purchasing

이천 사업장은 처음이시죠?

새로운 가족이 된 지 6개월여
 세플러 가족들에게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한 곳.
 바로 이천 사업장입니다.

슬며시 찾아온 봄기운을 느끼며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
 멀리서 봐도 포근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대나무 산책로는 더욱 선명한 초록을
 드러낼 것입니다.



단순한 카페를 넘어 임직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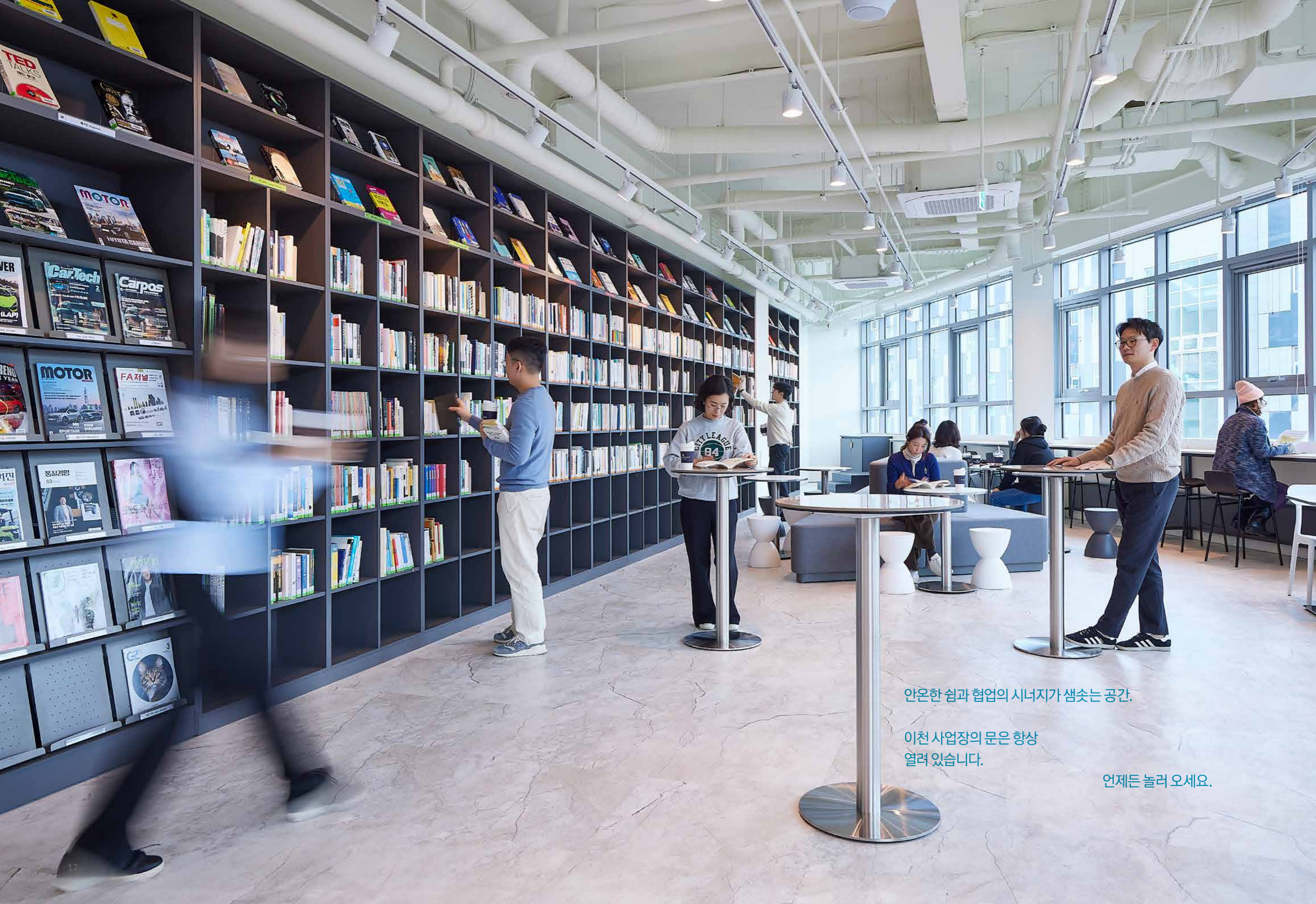


북카페 'Motion Brew'입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며
에너지를 채우는 곳.





안온한 심과 협업의 시너지가 샘솟는 공간.

이천 사업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물류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이천 사업장 오토스토어

버튼 하나로 출하와 적재 가능 첨단의 오토스토어

13개의 로봇과 5,830개의 스토리지. 스토리지 빈 높이는 무려 425mm에 정전기 방지 기능(ESD Protection)도 적용했다. 사람이 이동할 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창고에 더 많은 저장 공간 확보는 물론, 시간과 비용 효율까지 끌어올린 새로운 물류 시스템. 지난 2023년 11월 준공된 이천 사업장의 오토스토어에 대한 설명이다.

불순물 유입을 막기 위한 방진 가운과 신발 커버를 장착하고 에어 샤워실에서 먼지를 털어낸 다음 도착한 오토스토어는 사방이 반질반질하다. 이천 사업장 Plant SCM 황민용님은 “우리 집보다 깨끗해서 누워서 자도 된다”는 너스레로 이곳이 얼마나 깨끗한지 설명했다. 거대한 유리 벽면 앞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 놓인 버튼을 누르니 물건이 출하된다.

Plant SCM 황민용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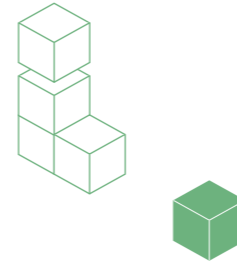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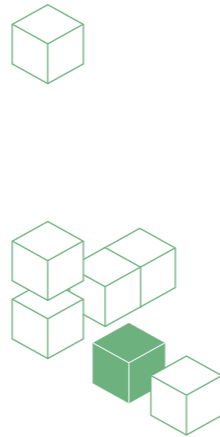
창고 재고 관리 및 직원 안전위험 점검 관리 담당

Plant SCM 박민선님

고객 방문 및 감사 대응, 비용 승인 요청 및 전반의 직원 교육 담당

Plant SCM 송초민님

업무로드(Workload) 분석, 창고 인원·비용·재고 흐름 등 창고 전반의 관리 담당



안성물류와 서울 사무소 구성원 3인이 이천 사업장을 찾았다. 목적은 국내 동종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자동화 창고 오토스토어 방문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류 시스템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3인은 질문을 쏟아냈다.

접근성 Good! 전통의 안성물류

1996년 문을 연 안성물류는 면적 약 8,275m²(2,500여 평) 공간에서 입출고, 보관, 수출입 등 다양한 물류 활동을 한다. 안성물류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다. 경기도 남부 지역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과 타지역 접근성이 좋다. 고객들의 영업소뿐 아니라 경기도 인근에 많이 자리한 제조 공장들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고객들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운영부터 운송, 고객 납품에 따른 물류 노하우를 축적한 장기 근속자가 많아 어떤 돌발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자랑거리다.

안성물류

조용원 사원

인더스트리얼 수입 상품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대리점용 출하 담당

안성물류

원동현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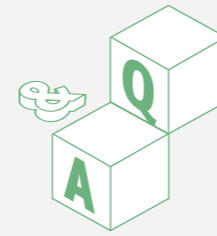
물류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재고 관리, 입출고 조직 운영과 보안, 환경안전 담당

SCMBDAutomotiveBearings

김진혁 팀장

재고 관리 및 공급망 프로세스 (Supply Chain Process) 개선 KPI 개발 및 관리 담당





원동현 팀장 _ 두 번째 방문이지만 여전히 새롭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토스토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송초민 부 _ 오토스토어는 입출고가 가능한 모듈 로봇이 24시간 작동하면서 기존 대비 정확한 입출고와 공간 관리를 극대화한 모듈 스토리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효율적인 용적을 관리와 어떤 자동화 장비보다 정확하고 빠른 입출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수직 공간을 활용해 기존 공간 대비 2~3배 가까운 효율적인 저장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원 사원 _ 차세대 전동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기존 세플러의 운영 방식과 비교했을 때 오토스토어 전환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황민용 부 _ 기존에는 모빌랙에 전자 부품을 보관하며 입출고를 진행했는데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작업자가 출고 리스트를 보며 매뉴얼 작업을 하다 보니 출고 오류가 종종 발생해서 전산 보정 작업 및 업무로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토스토어 시스템 도입 후 업무로드도 대폭 감소했고 정확한 입출고로 보다 빠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입출고 시스템은 보관 용적률이 평균 98% 이상으로 관리되어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존 재고 대비 60%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진혁 팀장 _ 변화의 폭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연간 비용 절감 측면도 궁금합니다.
박민선 부 _ 오토스토어 설치 후 인원 측면에서는 기존 전자 부품 컨트롤 파트에 16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10명으로 줄어 약 37.5%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관 용량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약 185K reel이 보관 가능한데 반해 설치 후 260K reel까지 수용하면서 40.5%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면적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보다 65.5%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연간 6~7억 원 정도 절감되는데,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누적되면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왼쪽부터 조용원 사원, 원동현 팀장, 김진혁 팀장

“ 다양한 크기와 고중량 제품·상품이 많은 안성물류에 적합한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지능화 및 자동화가 앞으로 우리 일자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배우고 변화하면 디지털 문명시대에 적응이 가능할 것이고, 이와 관련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_원동현 팀장



이번 이천 사업장 오토스토어 건학은 세플러코리아 물류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화두를 던지는 한편 앞으로 그려야 할 청사진을 보여주는 알찬 시간이었다.



“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현장은 점차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로 인해 물류업계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자동화 장비를 도입했고, 다골절 로봇과 AMR 같은 AI 이동 장비로 노동력을 줄여 고령화 시대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천 사업장의 오토스토어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한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_송초민 부





Robotics & Humanoid TF로 세플러 미래 엔진 Running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기업도 지속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움직여야 한다. 베어링 명가에서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거듭난 세플러는 미래 먹거리로 AI 로봇(AI Robotics) 산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또 한 번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첨단 로봇학과 Connecting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s)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약 28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24억3,000만 달러(약 3조4,919억 원)에서 2032년 660억 달러(약 94조8,420억 원)로 매출이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앞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은 물론 제조공정이 크게 개선됨은 명명백백한 미래로 자리 잡았다.

이미 협동 로봇, 인더스트리 로봇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 기어박스 부품, 센서,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 등 다양한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세플러 역시 최근 휴머노이드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상하고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스타트업(Humanoid Start-up) 조직을 구성했고, 휴머노이드용 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세플러코리아도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선도하는 카이스트 출신의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독일 본사를 방문, 본사의 로봇 부품 개발 및 고급 생산 기술(Advanced Production Technology)을 소개했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세플러는 이동형 양팔 로봇 관련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개발·공급하게 되고, KETI는 국제 표준 기술기반 제조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지원하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운영 AI 솔루션 개발 및 완제품 생산을 수행하게 된다.

Robotics & Humanoid TF Starting

업무협약 이후 세플러코리아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그리고 KETI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결과 지난해 가을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주했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세플러코리아에 Robotics & Humanoid TF가 신설되었다.

이번 국책과제의 수행 기간은 2028년까지로, 첫해인 올해는 4년 동안 수행할 연도별 계획을 정확하게 짜는 기획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일정상 2026년 말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에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저희는 2027년부터 로봇 활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해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도별 일정을 짜야 합니다.”

TF 총괄 프로젝트 리더를 맡은 도정호 상무는 4년 프로젝트의 첫해인 올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각사의 전문성으로 Moving

이번 국책사업은 세플러코리아를 비롯해 5개 회사 및 기관이 함께한다. 각자 뚜렷한 전문성을 가진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명확하다. 먼저 주관사인 KETI는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가상의 설비와 프로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드웨어를 담당한다. 카이스트 시절부터 로봇을 개발한 노하우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를 자부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중요한 듀얼 암에 대한 조작, 바이 페달, 즉 워킹에 대한 모델링은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힘을 보탠다. 물류 자동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 씨메스는 비전 센싱(Vision Sensing)으로 로봇을 컨트롤하는 기술 개발을 맡았다.

세플러코리아는 로봇 구동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테스트도 세플러코리아의 몫이다. 실제 만들어진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활용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진행,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향후 4년 전후로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세플러 현장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Robotics & Humanoid TF의 양대 축 도정호 상무 & 조형만 이사

세플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을 만든다. 그러나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는다. 세플러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플러의 부품을 통해 로봇이 움직인다. 그 기술 중심에 Robotics & Humanoid TF의 양대 축, 도정호 상무와 조형만 이사가 있다.



Q TF 업무는 크게 국내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해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나뉘고, 하위에 휴머노이드 및 로봇 공학, 생성형 AI에 의한 AI 비전 검사, 스마트 제조 파트가 있습니다. 각 파트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조형만 이사_ 휴머노이드 및 로봇 공학은 해외 공동 연구과제로 자율제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도구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제조공정에 대한 실증을 목표로 하는데, 세플러는 휴머노이드 부품 개발 및 국내외 공장에서의 실증 등을 2028년까지 진행합니다.
AI에 의한 AI 비전 검사(AI Vision Inspection by Generative AI)는 2024년 시작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품질 보장을 위한 검사공정에 단순한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모델 경량화를 통해 검사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고, 검사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세플러의 국내외 공장에서 테스트합니다. 스마트 제조는 국내과제입니다. 베어링 공정의 주요 툴(Tool)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과제로, 전주 공장의 WB Line에서 진행 중이며, 역시 2026년까지 수행합니다.

Q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도 상무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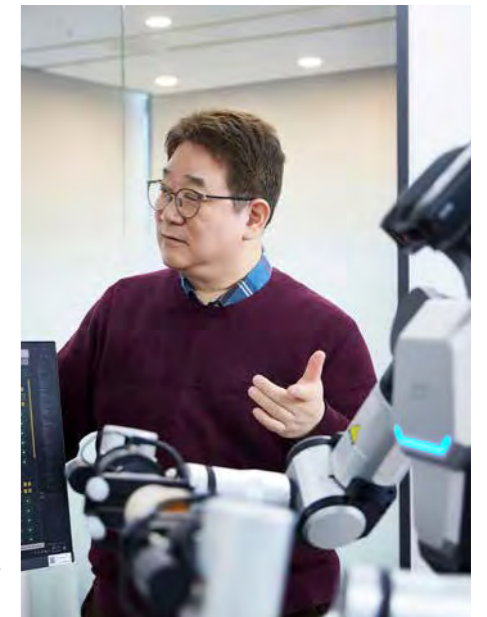
A 도정호 상무_ TF에 소속된 6명의 구성원은 역할도 근무지도 다릅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완수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TF를 꾸렸습니다. 각자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 미팅 같은 업무 일정을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각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들의 역할과 능력을 조율하면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2년 정도는 부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고, 하반기 2년은 로봇 활용이 주요 업무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멤버 중에 공장에서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후반부 2년 동안은 조 이사님을 필두로 그 두분의 역할이 클 겁니다.

도정호

상무

Profile

1998년 입사. Automotive Transmission용 베어링 개발을 담당했으며, 2021~2024년까지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B&IS AP R&D Head를 맡고 있습니다. Robotics & Humanoid TF는 겸직으로 수행 중입니다.



조형만

이사

Profile

1986년 입사. 2005~2014년까지 IT Korea Manager, 2015~2018년 CIO Asia Pacific, 2019~2024년 Smart Factory TF, Digital Transformation Team을 맡아 로봇 자동화, 물류 자동화, AI Solution과 대 정부 관련 업무 및 과제를 수행했고, 현재 도정호 상무를 도와 Robotics & Humanoid TF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듣다 보니 TF를 구성하는 전문가 6분의 조합이 궁금합니다.

A 조형만 이사_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이정균 마스터와 정지원 수석연구원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희가 만드는 베어링, 액추에이터, 감속기 등의 부품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정균 마스터가 감속기 전문가이고, 정지원 수석은 베어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채규홍 팀장과 이은식 세그먼트장은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채규홍 팀장은 전주 공장에 있는데요. 그곳이 휠 베어링 특화 공장입니다. 전주 공장 휠 베어링 공정에 로봇을 이용할 경우 채 팀장이 그 공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은식 세그먼트장은 안산 공장에서 전기차 기어박스 제조 프로세스를 전담합니다.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주 공장의 휠 베어링 공정과 안산 공장의 기어박스 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반기 2년 동안 진행될 현장 테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세플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다양한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플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도정호 상무_ 세플러는 다양한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만큼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는 많은 부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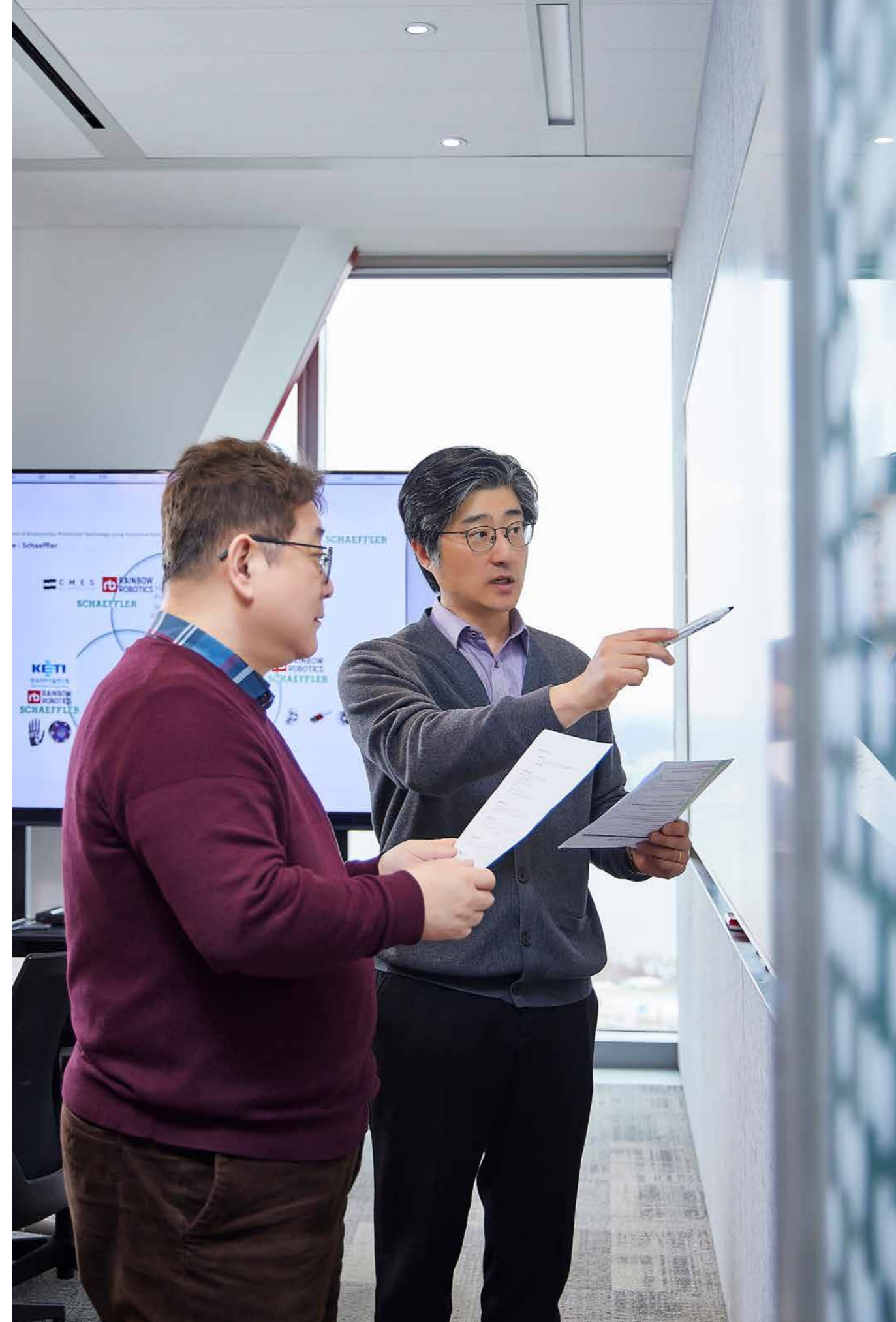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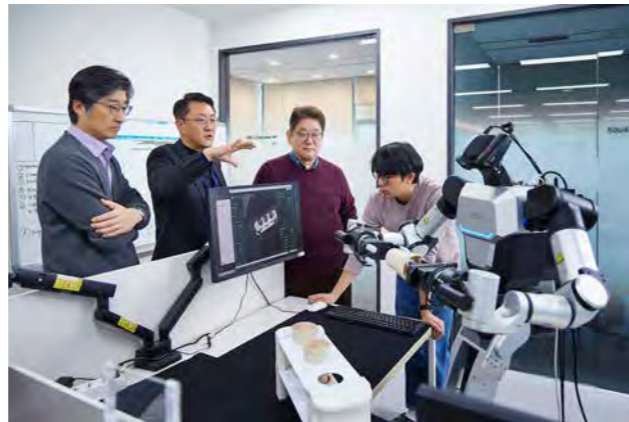
이미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 및 고급 생산(Advanced Production)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봇은 만들지 않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것, 바로 세플러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Q TF의 목표와 세플러코리아의 로봇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궁금합니다.

A 조형만 이사_ TF의 단기 목표는 지금 진행하는 국책과제를 잘 완수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 과제의 결과물이 향후 저희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양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의 활용 방안도 본 과제를 통해 잘 검증해서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 세플러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도정호 상무_ 현재 TF에서 하는 업무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부 협력사뿐 아니라 내부의 협업 역시 중요합니다. Business Division, Plant IE, Production 및 다양한 부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인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생산 현장 '어벤져스'의 비밀 "소통이 답이다"

생산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원 공장 생산라인에서 생산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평균 근속 연수 22년 차인 세 사람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CAPTAIN SCHAEFFLER

아이언맨
창원 공장 생산물류 창원 김서민 주임

캡틴 아메리카
창원 공장 생산물류 창원 장동술 주임

토르
창원 공장 생산계획 테이퍼베어링 MU 조성현 사원



최강의 슈퍼히어로들이 모였다 - Schaeffler
AVENGERS

2025년 4월 28일 대개봉

연륜에서 묻어나는 현장감

올해로 31년 차인 김서민 주임과 26년 차인 장동술 주임, 그리고 11년 차인 조성현 사원. 세 사람의 연차를 평균 내면 22년이지만, 세플러코리아 창원 공장에서 11년 차는 아직 애송이(?)이고, 최소한 20년은 넘어야 중간 관리자로 인정을 받는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곳이다 보니 숙련된 장기 근속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제가 주임으로 있는 생산물류 창원의 팀원은 20명 남짓인데 제 연차는 딱 중간입니다. 최장기 근속자는 정년을 코앞에 둔 분이고, 막내는 30대 초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대부터 60대까지 한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들이 함께합니다.”

2000년에 입사해 팀 체계가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생산계획 소속과 생산물류를 오가면서 25년 동안 꾸준히 창원 공장 생산 부문에 몸담아온 생산물류 장동술 주임이 생각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간단명료하다. 생산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 사무직과 현장 전문직을 잇는 가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에 31년 차인 김서민 주임 역시 공감의 고개를 끄덕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물류센터로 입고 처리하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입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오가는 현장에서 오더가 나면 현장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점검합니다.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면 소속 팀장에게 현장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전산 시스템의 변화 등 현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늘 해오던 일이죠. 장동술 주임의 말처럼 중간 관리자인 저희는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유틸리티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20여 명에 이르는 생산물류 창원과 달리 조성현 사원이 소속된 생산계획 테이퍼베어링 MU는 혼자다. 생산 일정과 자원 배분을 계획하고 조정해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하는 부서다 보니 주로 생산물류와 함께 일한다. 그래서인지 조성현 사원은 장동술·김서민 주임을 큰형님처럼 따른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친화력’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두 사람에게 조성현 사원은 귀여운 막냇동생 같은 존재 같았다. 장동술 주임이 “성현이가 친화력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찐’이구나 싶다.



진정한 의리맨, 캡틴 아메리카 장동술 주임

“현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으면 퇴근 후 식사 겸 소주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내도 터놓는데, 그런 게 자연스러운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심 부자, 아이언맨 김서민 주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장 관리자는 모든 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친화력 감, 토르 조성현 사원

“11년 차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애송이입니다. 저 역시 많은 선배님처럼 정년 때까지 세플러인으로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련한 선배님들을 눈여겨보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한자리에 모인 ‘어벤져스 빅3’

20년 넘는 나이 차가 무색할 정도로 스스럼없이 친한 세 사람이 오늘은 작업 현장을 벗어나 ‘어벤져스’에 도전하기로 했다. 미국 양대 코믹스 중 하나인 마블코믹스 작품으로, 아이언맨을 비롯해 스파이더맨, 헐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가 많다. 과연 세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어떤 캐릭터와 어울릴까?

김서민 주임이 가장 먼저 선택했다. 영웅물 역사상 가장 부유한 히어로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바람둥이지만 의리와 재력이 넘치는 아이언맨과 김서민 주임은 언뜻 안 어울려 보인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잡는 순간 조용한 카리스마가 흘렀다. 이어 장동술 주임은 캡틴 아메리카를 선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싸운 슈퍼히어로. 장동술 주임의 듬직한 체구와 단단한 표정이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하며 선배와 후배 사이를 아우르는 장동술 주임의 성격과 찰떡 조합이다. 그리고 막내인 조성현 사원의 선택은 토르다. 힘은 강하지만 야무지지 못한 성격으로 로키의 간계에 당하곤 하는 조금은 어리숙한 토르는 웃음 많고 선한 눈매의 조성현 사원에겐 맞춤형 같은 캐릭터다.

세 사람이 각자의 캐릭터 포즈를 취하자, ‘어벤져스 빅3’가 완성되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운영과 원활함을 지원하는 생산물류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조율하는 생산계획처럼 ‘어벤져스 빅3’로 분한 세 사람의 조합이 딱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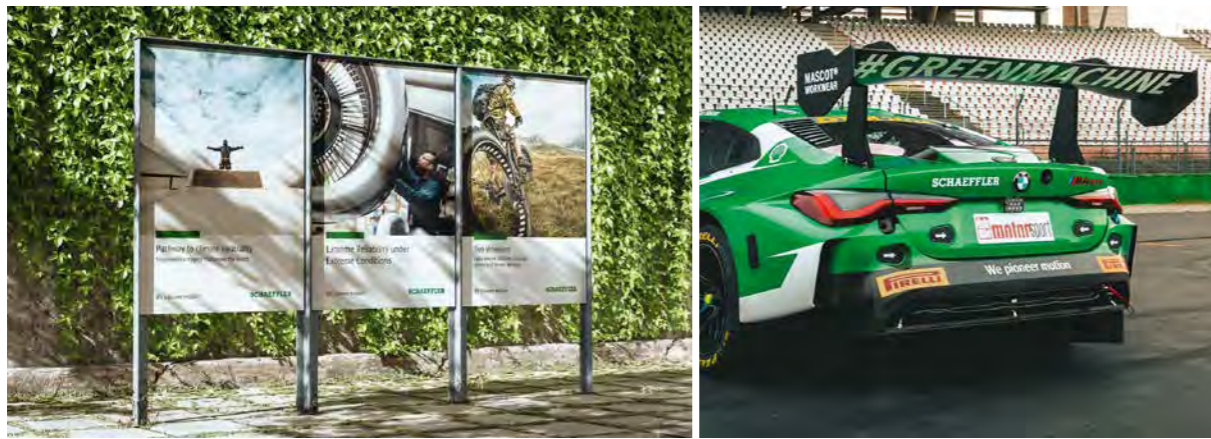
1970년대 준공된 창원 1공장은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에 소요되는 볼 베어링과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비롯해 미래형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특수 베어링 등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창원 공장 제조공정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사람처럼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온 힘을 다해 협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플러’라는 브랜드의 힘 브랜드로서의 ‘세플러’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차이를 만들고 시장에서 경쟁한다. 새롭게 재해석한 세플러의 3가지 브랜드 요소인 사명과 마커, 그리고 클레임을 통해 세플러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펴본다.



브랜드 북 접속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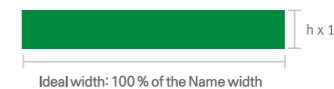
사명

사명은 일종의 서명과도 같다.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세플러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세플러라는 사명은 사육, 제품과 포장, 박람회와 행사, 홈페이지, 앱 등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디자인적으로 세리프 글꼴을 사용해 클래식하면서도 전통이 담겨 있고 섬세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독특하고 진중하지만, 매력적인 세플러의 기업 정체성을 잘 담고 있다. 그리고 세플러 그린(Schaeffler Green) 컬러가 안정감, 긍정성, 성장의 느낌을 주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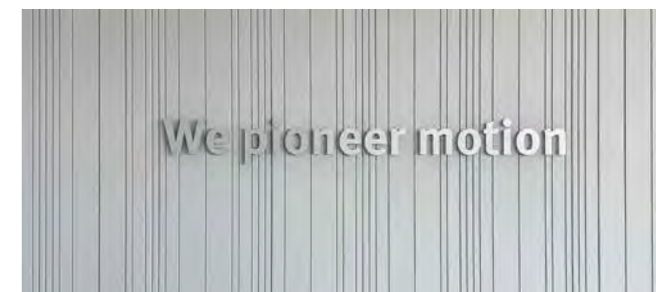
마커

마커는 브랜딩을 더 특별하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용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항상 세플러 그린(Schaeffler Green)을 배경으로 하며, 이는 세플러 브랜드만의 특징이다. ‘Schaeffler’와 연계되어 레이아웃의 중심 역할을 하며 주요 문장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클레임

세플러의 클레임은 100% 불투명도에 고유 글꼴인 세플러 메타(Schaeffler Meta)와 카본 그레이(Carbon Gray)로 표시한다. 영문으로만 쓰이며 ‘W’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전 세계에서 유효하며 그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세플러의 레이아웃에서 클레임은 명칭과 동일한 가로줄 또는 세로줄에 배치하며, 통일성 있고 프로페셔널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We pioneer motion

컬러

세플러 브랜드는 또렷하고 직관적이며 강한 인상을 준다. 컬러 팔레트를 집중 적용한 결과다. 색상을 통해 세플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다. 무채색과 원색의 조합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선구적이고 고급스러운 하이테크의 느낌을 자아낸다.

White	명확성, 정확성, 지속성을 나타낸다.	CMYK: 0 / 0 / 0 / 0 RGB: 255 / 255 / 255 Hex: #FFFFFF
Schaeffler Green	자연의 색으로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향한 의지를 나타낸다.	CMYK: 100 / 15 / 100 / 0 RGB: 0 / 137 / 61 Hex: #00893D
Carbon Gray	기술적 전문성과 강점, 흔들림 없는 신뢰성을 나타낸다.	CMYK: 0 / 0 / 0 / 75 RGB: 100 / 100 / 100 Hex: #646464

화창한 봄날의 한 조각

이시혁 마스터 가족의 테마공원 체험

늘 우리 곁에 머무는 가족의 소중함은 함께 웃고 걸을 때 더욱 빛이 난다.
이날의 따스한 봄나들이가 평소보다 환한 행복을 안겨준 이유다.



찬바람에 더욱 포근했을 가족의 품

꽃샘추위가 찾아와도 가족의 마음에는 완연한 봄이 자리 잡은 이날, 추위에 꽂꽂인 아이의 손을 두 어른이 따스하게 맞잡았다. 이시혁 마스터의 가족과 만난, 유독 추웠던 3월 어느 날의 풍경이다. 세플러코리아에서 11년 동안 일한 이시혁 마스터는 현재 Business Development & Strategy BIS 팀에서 근무한다. 이번에는 마스터로서의 모습이 아닌,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그와 마주했다. 한쪽에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동반자인 아내 최선미 님, 다른 쪽에는 '애교쟁이'로 불리는 일곱 살배기 외동딸 서하가 함께다. 세 사람이 찾은 '몬스터리움'은 김포의 작은 테마파크로, 수족관과 동물원, 체험 존이 어우러진 곳이다. 큰 눈망울을

끔찍이며 울부짖는 공룡과 거대한 고릴라가 입구부터 손님을 맞이한다. 희귀 어종과 파충류를 가까이서 보고, 먹이 주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시혁 마스터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딸아이가 좋아해서'다. 세 사람의 몬스터리움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 익숙한 곳이기에 서하가 더욱 편안히 촬영에 임하리라는 점도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 그런 섬세한 배려 덕분일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듯 보였던 서하의 얼굴에도 금방 웃음꽃이 피었다.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과 함께한 시간

"돼지 코 물고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물고기를 보느라 서하는 수족관 유리에 바짝 붙어 까치발을 들었다. 어른의 팔보다 큰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며 지나간다. 긴 주둥이 끝이 위로 뾰족하게 올라온 이 물고기의 이름은 '엘리게이터 가아'. 그 독특한 모습이 돼지를 닮았다고 느낀 모양인지 작은 손으로 열심히 코끝을 눌러가며 흥내를 낸다. 어린이의 경쾌하면서도 즐거운 상상력에 부모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아이는 동물 구경, 어른은 아이 구경이 한창이다. 흰 뱀 '알비노 콘스네이크'를 보고 무서워하면서도 꼭 목에 두르겠다는 서하의 말에 최선미 님은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다. 이시혁 마스터는 서하가 물고기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지지지도 않고 몇 번이고 아이를





번쩍번쩍 안아 올린다. 그 반짝이는 장면들이 셔터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조금씩 담겼다. 가족이 중심이 된 이날 하루,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는 거북이 먹이 체험존이다. 백 살하고도 두 살을 더 먹은 육지 거북이는 땅에 웅크린 웬만한 일곱 살 아이보다 몸집이 컸다. 집게로 청경채를 집어 비죽 내밀자 생각보다 민첩한 속도로 달려온다. “최대한 빠른 속도야!” 아이가 즐거운 비명을 내질렀다. 거북이들의 이름은 ‘알록’ ‘달록’ 그리고 ‘희망’ ‘소망’ ‘승리’. 촬영 선물로 큰 먹이 바구니를 받은 서하는 동물들과 교감하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힐링하는 알록달록 희망의 순간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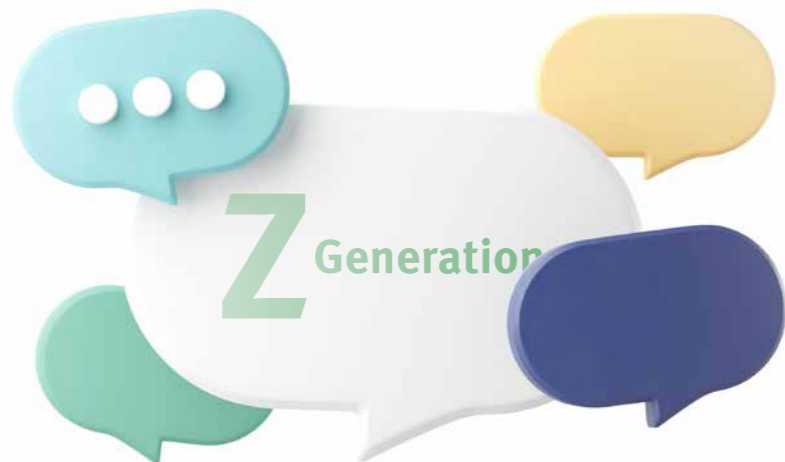
일상의 활력소이자 에너지 충전소

이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옥상에서 펼쳐졌다. 추운 날씨에도 탁 트인 옥상에 도착하자 맑은 하늘 아래로 서하가 짠듯이 뛰어나갔다. 한쪽에 설치된 공룡에게 인사하고, 세 식구는 꼭대기에 놓인 ‘천국의 계단’으로

향했다.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진 듯 설치된 계단을 오르며 작게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린다. “서하야, 무섭지않아?” “걱정 마, 아빠가 손잡아줄게.” 그렇게 차근히 계단 꼭대기에 서서, 세 식구는 서쪽으로 넓게 트인 대명향을 바라보고 포즈를 취해보며 추억의 한 조각을 남겼다. 즐거운 하루를 보낸 이시혁 마스터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에너지 충전소’다. “지친 일상에도 두 사람의 웃음과 사랑은 언제나 힘을 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삶의 활력소이지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과 보낼 예정이라고. “2019년생 딸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행을 제대로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틈만 나면 나들이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에서 같이 걸었던 짧은 하루. 그 하루가 이시혁 마스터 가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Q 소속감이라는 게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걸도는 Z세대 팀 막내와의 소통법이 궁금해요.

새로 들어온 Z세대 막내가 어쩐지 걸도는 느낌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모르는 건 시를 써서 해왔다고 당당히 말하질 않나. 표정도 무덤덤해서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조언하러니 끈대처럼 보일까 싶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A Z세대는 흔히 협업, 소통 능력, 친화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보다 자기 삶을 더 중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수평적이고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이전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일 뿐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Z세대가 성장한 과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막내로 들어온 Z세대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틀에 짜인 생활을 해야 했던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어느 정도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교류해야 할 시기에 바깥활동이 막혔지요. OT, MT는 물론, 원격 강의를 듣다 보니 대면 강의 경험도 다른 세대에 비해 적습니다. 반대로 결핍되었던 사회 경험과 소속감을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Z세대의 93%가 업무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지요? 독립된 영역을 갖춘 상태에서의 업무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원격근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직장 내 커뮤니티에서의 소외로 이어지거나 멘토링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거든요. 선배로부터 커리어에 관한 조언을 받지 못한 Z세대는 익숙한 시나 랜선 멘토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Z세대는 대면 활동이 낯설지만,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Z세대를 위해서는 식사 동행이나 복리후생보다는 사회적 인정과 멘토링을 통해 조금씩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회사나 선배가 일방적으로 멘토를 정해주기보다 Z세대 직원이 희망하는 멘토 또는 희망하는 바에 대응할 수 있는 멘토 매칭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교원그룹에서는 멘티가 선배 멘토의 프로필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택해 정신적인 안정과 사내 관계 형성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학습, 취미, 대화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면 자연스러운 참여로 Z세대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일 관심사 기반의 멘토 매칭 방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 사례로는 글로벌 기업 마스터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내가 번아웃?” 아니라고 확신해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번아웃이 온 줄 잘 모른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니 치료의 시작도 없다. 아래의 테스트를 통해 가볍게 진단해 보자. 스스로 “나는 번아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라도 ‘번아웃의 위험이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하자.



간단한 ‘번아웃 증후군’ 진단 테스트

* 출처: 서울성모병원

-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며 화가 치솟는다.
-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된다.
-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 하는 일에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 무기력하고 싫증이 난다.
-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 해야 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 음주, 흡연 등 쾌락 요소만 찾는다.

* 위 항목 중 해당하는 증상이 3개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어때요?”

보고, 알고, 느끼며 번아웃에서 탈출해 보자. 힐링이 되는 특별한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도서] 《우린, 조금 지쳤다》

박종석 지음, 포르체

일과 관계에 지친 이들의 회복을 돕는 번아웃 심리학 에세이다.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임상강사, 삼성전자 부속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인 저자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과 상담한 경험을 살려 이 책을 썼다. 본인의 실패와 번아웃 경험까지 녹아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면 현대인의 고충에 공감하게 되고,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도서] 《마음 가면》

브레네 브라운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전 세계 2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아마존 ‘대인관계’ 분야 10년 연속 베스트셀러다. ‘취약성’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브레네 브라운의 대표 도서로, 취약성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강인하게 만드는지를 느끼게 해 준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한 1,300여 명을 인터뷰하고 1만 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해 연구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고스란히 이 책에 쏟아부었다.

[유튜브 채널] 힐링트리뮤직 & Slow TV

지친 이들에게는 ‘멍때리기’도 필요하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상도 도움이 된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힐링이 되는 채널이 있다. ‘힐링트리뮤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천천히 흐르는 멋진 영상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채널이다. ‘Slow TV’에서는 8시간 연속으로 재생되는 장작 타는 소리 ASMR을 불명 영상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솔직한 내면의 감정이 캐릭터로 등장한다면? 상상을 현실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다.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른 관객의 호응도가 더 좋았던 이유는? 아마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경험이 언제인지 까마득해진 어른들이 다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전환점이 되어주었기 때문 아닐까? 이야기에 공감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방법을 회복할 수 있다.

세플러코리아, 현대위아 '2024 우수 협력사' 선정

세플러코리아가 현대위아 주최 '2025년 파트너십 데이'에서 2024년을 대표하는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IDA2 휠 베어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입니다.

IDA(Integrated Drive Axle)는 현대위아에서 조립·공급하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액슬로 드라이브 샤프트와 휠 베어링이 하나로 통합된 제품입니다. 2024년 2월, 세플러코리아는 IDA2용 휠 베어링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약 4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28년 NE2(현대 아이오닉5 후속), 2029년 NV(기아 EV6 후속)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이 창원에서 진행 중이며, 최종 양산은 2028년부터 전주 공장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대위아가 IDA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 고민하며 개선된 IDA2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세플러코리아는 긴밀한 기술 교류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주 공장의 라인 개조 검토,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전주 공장, 휠 베어링 BU, 구매 및 영업 부문을 아우르는 유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 그리고 매니지먼트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IDA2 휠 베어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One Voice' 대응을 통해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2025 BIS 사업 부문 대리점 신년회 현장

지난 1월 13일, 세플러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베어링 &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부문의 공식 대리점 대표들을 초청해 '2025 세플러코리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리점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대리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신년회에는 베어링 &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부문의 공식 대리점 대표자 25명을 비롯해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의 신년사와 함께 2024년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대리점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매출과 성장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대리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2개 대리점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매출 부문 우수 대리점]

- (주)동명베어링, (주)디에스콘, 서원물산(주), (주)서진베어링상사, (주)세광티엔에스, (주)위더스테크놀로지, (주)종로

[성장 부문 우수 대리점]

- 대상베어링, 대신베어링(주), (주)부산상공사, (주)영진비엔에스, (주)진명베어링



세플러코리아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 진행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2월 17~21일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시흥 거모지역아동센터, 미산 지역아동센터 등 인천 및 경기 시흥 지역 3개 기관에서 지역 초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분리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 강사로 참여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 쓰레기 분리배출의 사회적 이점 ▲ 일상 속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지식을 습관화하기 위한 놀이 학습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실습 ▲ 폐도서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등 아이들이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경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아동들은 '내가 꿈꾸는 그린지구 그림책'을 제작하는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플러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공식 오픈



세플러코리아는 2020년 6월 네이버 포스트를 개설해 약 5년간 350여 건의 포스트를 발행하며 구독자에게 세플러와 세플러코리아/자동차/산업기계 등 여러 이슈와 산업 트렌드를 전했습니다.

네이버의 정책 변경으로 '네이버 포스트' 플랫폼은 2025년 4월 말 종료되고 '네이버 블로그'로 통합됨에 따라, 세플러코리아도 공식 채널을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플랫폼 이동을 넘어 전체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선하고, 세플러코리아 공식 블로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카테고리 구성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 9개로 세분화되었던 카테고리를 세플러 그룹의 주요 사업부문을 효과적으로 아우르면서도,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5개의 카테고리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전체 기사의 배열을 최신 콘텐츠와 인기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는 회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참신하고 유익한 소통 창구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VLS사업 부문 대리점 신년회 개최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2월 13~14일, 전라남도 담양에서 VLS 사업 부문 대리점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신년회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성장'이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대리점들과 공유하며, 제품 로드맵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창원 공장 축구 동우회 창원시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세플러코리아 창원 공장 축구 동우회가 창원시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부 리그 연속 우승으로 승격한데 이어 2부 리그에서는 전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창원 공장 축구 동우회는 볼보코리아와 GMB 코리아를 만나 2승을 거두고 결승에서는 볼보코리아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관·기업체 20개 팀, 생활체육 12개 팀 총 32개 팀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해 지역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소통, 화합의 취지를 두고 페어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천 공장,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길을 찾다

E-Mobility On-site Plant Review 실시

지난 3월 6~7일, Mr. Rainer Puehl(Senior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 SCM E-Mobility) 님이 이천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비롯한 각 관련 부서의 집중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어진 Townhall 미팅에서는 E-Mobility 플랜트로서 이천 공장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과 기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천 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One Goal'을 향해 나아가는 직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전동화 역량을 대표하는 이천 공장은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선도 할 계획입니다.



이천 사업장, Korea E-Mobility Sales 부문 전략 성장 협의 성료

지난 3월 10~12일까지, Mr. Lars Schultheiss(Head of E-Mobility Sales & Marketing) 님이 이천 사업장을 방문해 Korea E-Mobility Sales 및 Marketing 부문의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E-mobility Sales Korea를 주축으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논의하고, 현대자동차 비즈니스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력한 통합 조직으로 재탄생한 E-Mobility Sales Korea 조직의 소개와 함께, 각 BU의 비즈니스 전략과 우수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MR4, Inverter, HPCU 라인뿐만 아니라 안산 공장 EMR4 Reducer 라인 현장 점검도 이루어져 양 사업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E-Mobility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Motion Brew' 이천 사업장 북카페 정식 오픈

이천 사업장 임직원에게 편안한 휴식과 활력을 선사할 사내 북카페 'Motion Brew'가 3월 18일, P-E동 2층에서 정식 오픈했습니다. Motion Brew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임직원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생각을 나누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임직원 참여 공모전을 통해 진행된 카페 이름 선정에는 총 244개의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세플러코리아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커피 한 잔에 담자는 의미를 지닌 'Motion Brew'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Motion Brew는 향긋한 음료와 신선한 베이커리, 그리고 다양한 책과 매거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협업의 시너지가 발휘되는 더욱 뜻깊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용 바랍니다.

운영 시간 08:00 ~ 16:00 위치 P-E동 2층



이천 사업장, 이천시로부터 과학고 유치 유공 표창장 수상

세플러코리아 이천 사업장은 지난 4월 1일 이천과 학교 유치 활동을 통해 교육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천시청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이천시청에서 열렸으며, 이천 플랜트 매니저 김종범 님께서 이천 사업장을 대표해 수상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이천 사업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이천시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천과학고 유치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E&S와 PPA 계약 체결

지난 3월 20일, 세플러코리아가 SK이노베이션 E&S와 서울 사무소에서 '태양광 재생 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이하 PP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PA는 전력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 사용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이번 PPA 계약을 통해 총 2.9MWp의 육상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을 오는 2027년부터 창원·전주·안산 공장 3곳에 20년간 공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75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이번 PPA 계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진모 SK이노베이션 E&S 재생E사업기획실장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세플러코리아의 전력 구매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다"며 "세플러코리아를 비롯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서플라이어 데이 2025' 현장 속으로!

세플러코리아는 매년 협력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플러 그룹의 방향성과 국내 구매 정책, 최신 기술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플라이어 데이(Supplier Day)'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서플라이어 데이 2025' 행사는 각 사업 부문 시장 동향을 비롯해 우수 업체 시상 등 다양한 주제와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공(New Beginnings: Sustainable Success - Together!)'을 주제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의 합병 이후 이뤄진 첫 서플라이어 데이로, 이병찬 대표이사를 비롯한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60여 명과 세플러코리아 및 비테스코 협력사 108곳에서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합병 이후의 사업 전망에 대해 공유했으며, 2040년까지 기후중립 공급망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세플러코리아의 ▲ 품질 개선 및 원가절감 ▲ 기술 혁신 ▲ 프로세스 개선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 5개 부문에서 8개 협력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주 공장 전문직 IT Access 롤아웃 워크숍 개최

지난 1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전주 공장 전문직 IT 액세스 롤아웃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전주 공장 전문직 IT 액세스 프로젝트는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 공장 임직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주 공장 디지털 게시판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사항(공장 주요 이벤트, 경조사 등)과 주간식단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화 등의 피복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7월 내 롤아웃 완료로 목표하고 있으며, 세플러의 글로벌 디지털화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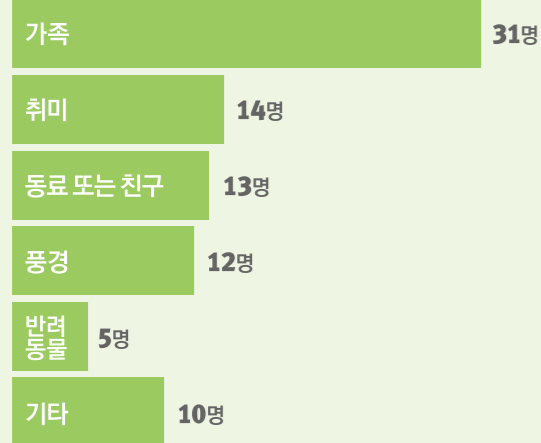


세플러코리아 나의 취향 나의 감성 최애 사진 챌린지

세플러 챌린지 2025년 주제는 '최애 사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들면 '찰칵'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 덕분에 나만의 애정 가득한 추억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같은 내 새끼, 애착 소품, 여행지 감성 등 세플러인의 취향과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최애 사진을 수상작과 함께 소개합니다.

응모 기간 2025년 3월 5~24일
참여자 85명

최애 사진 키워드



수상자

- 최우수상**
임채웅_창원 설비보전
- 우수상**
허가은_전주 MP&L
정혜경_서울 IT Infrastructure&Platforms A/P
문소현_이천 PE ASE(SWI)
김승석_이천 Production segment 1 Repair
- 장려상**
김다희_창원 Customer Service
임태겸_이천 Production segment 1
조대휘_안산 BU EC / VTS
박재석_이천 Operations & SCM E-Mobility
이가은_서울 전략기획팀 및 ESG TF
추인혜_창원 HR창원 환경안전

너의 침대가 되어줄게~~~ 임채웅_창원 설비보전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침대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부모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소감: 아이들과 처음으로 여수 여행을 떠났던 날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잠을 잔 탓인지 아이들이 새벽에 잠을 설치는 바람에 매우 피곤했는데, 기특하게도 아바가 피곤한 줄 알았는지 저렇게 낮잠을 자줘서 조금이나마 피로를 덜었던,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수상

공중부양 김승석_이천 Production segment 1 Repair

가족과 함께한 태국여행 중 뒤에 보이는 배경 따라 한다고 찍어본 추억의 풀짝 샷! 제법 날아오르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
소감: 우수상 수상 소식을 듣고 사진처럼 제 기분이 '올라올라' 가네요. ^^ 기억이 오래 남는 추억이자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사진으로 많은 분이 잠시라도 기분이 'UP'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수상



장려상



STRONGER TOGETHER 임태겸_이천 Production segment 1

'자랑스러운' 회사 옷을 입고 EMR4 3조 단합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스트롱'하게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충전한 에너지로 다시 현장 복귀완료!
소감: 단체복 입고 즐겁게 보낸 하루가 좋은 추억이 되었고, 이렇게 상까지 받아 더욱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듀공과 진짜 듀공과의 만남

김재민_서울 Sales BD Chassis Systems Korea

듀공(Dugong), '바다의 숙녀'를 뜻하는 말레이시아 이름 '듀옹(Duyong)'에서 그 이름을 딴 듀공을 아시나요? 바다소에 속하는 듀공과의 해양 포유류로 수온이 따뜻한 남쪽 해안 지역에 서식하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듀공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헤엄치는 모습은 마냥 평화롭습니다.



너는 나의 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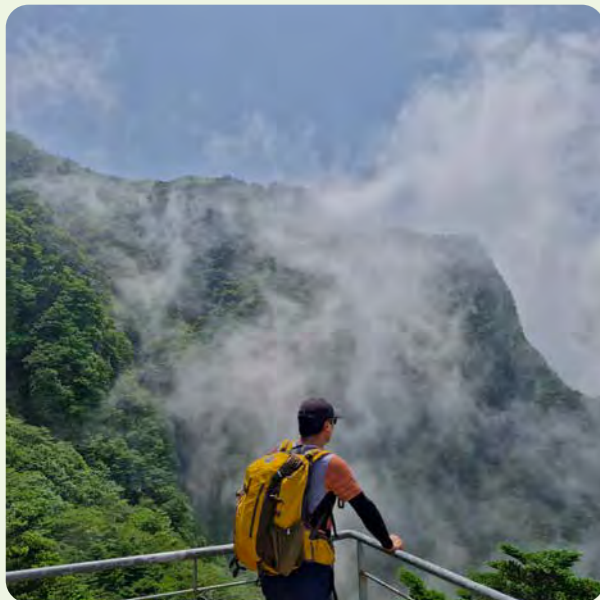
선민수_창원 MU1 소형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너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박학기 씨가 딸과 함께 부른 '비타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꽃 속에 파묻힌 우리 둘째도 제게는 힘든 회사생활 속 비타민입니다. ^^

신선놀음이 따로 있나요?

정해욱_이천 Ops Asia Icheon Facility Mgmt

한라산 등반 중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신선놀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정상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운치 있는 이 사진이 최애 사진입니다.



Thanks & Quiz

기자단

- 서울 박지수 기자
- 창원 기대환 · 손강우 기자
- 안산 최진경 기자
- 전주 이세영 · 이옥균 기자
- 이천 윤일선 · 이민지 · 안벼리 기자
-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 커뮤니케이션
- 민유정 팀장, 윤솔지 마스터
- 브랜딩 & 마케팅
- 이현기 팀장, 김채정 프로

지난 호 당첨자 명단

- 강민욱(연구소 재료기술)
- 김성진(Lifetime Solutions)
- 김준혁(전주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 김태현(설비보전 안산)
- 손종오(프로토타입 센터)
- 신말임(HR 창원)
- 안철성(안산 엔진부품 세그먼트)
- 이겨레(E-Mobility Sales)
- 이선종(Sales Mgmt & Marketing BIS)
- 이영규(휠베어링 세그먼트 전주)
- 최규철(볼베어링 세그먼트 전주)
- 홍경래(BU MTC TPM)

* 사보 퀴즈 및 챌린지 코너의 경우, 1가구 1부상 기준으로 당첨자 상품이 지급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onsense Quiz

답을 알고 나면 '피식' 웃음이 터질 지도 모를 '그림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플러인들의 센스와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웃음을 주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2.



지난 호 정답

Quiz 1. 가위바위보

Quiz 2. 첫 번째 +를 4로 바꾸기

참여 방법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로 참여하는 방법

- 1) 받는 사람에 yoonslt@schaeffler.com 이메일 기입
- 2) 필수 내용 작성하기_ 사보 퀴즈 참여 ① 퀴즈 정답 ② 직원 성함 ③ 사업장 위치 ④ 부서명 ⑤ 스마트폰 번호
- 3) 문자 보내기!



STRONGER TOGETHER

선도적인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을 향한 도약

세플러는 혁신, 효율성, 민첩성을 갖춘 글로벌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통합 실행(Integration Execution)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통합 과정은 상호 보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더욱 조화롭고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사의 문화적 융합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We pioneer motion

SCHAEFFLER